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의의와 한계*

A Study on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Architectural Phenomenology of Norberg-Schulz

Author 정태용 Chung, Tae-Yong / 정희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Norberg-Schulz's architectural phenomenology to find out its meaning and limitation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His phenomenological trilogy,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Genius Loci' and 'The Concept of Dwelling' are main texts to examine background, characteristics, meaning and limitations of his theory in relation to Structuralism and Heidegger's thoughts. Heidegger's phenomenology, especially his dwelling concept, had great impacts on forming Norberg-Schulz's architectural phenomenology. However, since his architectural phenomenology was strongly influenced by Structuralism, his theories present unstable combination of phenomenology and semiotics. And this results in instrumentalization, and overlooking body movement and socio-economical elements in his theory. In spite of these limitations, his theory also shows possibility to go beyond the theory of Modern architecture and plays important role in suggesting direction for better environment through applicability from single building to city in Postmodern architecture. Another meaning of his theory lies in presenting theoretical background for new way to interpret regionalism and specific policy tool to make town planning in Finland.

Keywords 노르베르크-슐츠, 하이데거, 건축 현상학
Norberg-Schulz, Heidegger, Architectural Phenomenology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건축의 존재와 체험’을 중시하는 이론인 동시에 실천 방법인 건축 현상학¹⁾은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이론이 건축 분야에 소개되면서 발전하였다. 노르베르크-슐츠는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건축에 도입한 선구자로서, 1980년대 그의 장소론은 도시 환경 조성에 있어서 근대건축의 한계에 대해 대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건축의 대표적 이론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역사와 지역 기반의 포스트모던 건축이 쇠퇴하고, 개념을 중시하는 해체주의 건축의 등장으로 노르베르크-슐츠의 장소 이론은 급속히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체주의 건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페테르 쉰더, 스티븐 홀 등 건축의 현상학적 특성을 강조하는 건축가들이 부각됨에 따라 그의 현상학적 건축 이론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는 노르베르크-

슐츠에 대한 연구가 장소론에만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실존 공간-장소론-거주론’으로 이어지는 그의 건축 이론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²⁾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노르베르크-슐츠의 다양한 건축 이론을, 자신이 주장한 ‘건축 현상학’의 큰 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그의 주요 건축 이론들이 건축 현상학의 ‘정의-개념-방법’의 체계로 수렴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들 이론의 주요 배경과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의의와 한계의 파악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
- 1) ‘건축 현상학’의 정의, 배경, 전개는 ‘정태용, 팔라스마 건축 현상학의 배경과 특성,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2015.4. pp.43-44 참조
 - 2) 국내에서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 전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연구로는, ‘박형진 등, 실존적 개념의 장소성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8.6’, ‘이정화, 한국현대박물관건축의 분석지표로서 슈츠의 ‘장소성’ 이론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5.10’, ‘이승현 등, 노베르크-슐츠(C. Norberg-Schulz)의 ‘장소성’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2003.9’, ‘변태호, 詩의 居住와 세계내 존재의 언어기호적 置換 : 슈츠의 ‘장소성’이론을 통한 현대건축의 비평적 이해, 한국건축역사학회, 1997.6’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노르베르크-슐츠의 이른바 건축 현상학 3부작인 ‘실존, 공간, 건축(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 ‘주거의 개념(Concept of Dwelling)’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이루어진 그의 주요 저작을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그의 건축 현상학 형성 배경으로서 구조주의의 영향과 하이데거의 현상학 도입 내용을 설정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배경 상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둘째, 시기별 및 내용상으로 그의 건축 현상학을 살펴봄으로써 그 구체적인 전개와 성격을 알아본다. 셋째, 그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한계를 하이데거 해석상의 문제, 현상학의 내재적 성격에 기인하는 문제와 신체 개념의 부재를 통하여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의의 부분은 포스트모던 건축의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내용과 지역주의 건축 그리고 정책적 실천 가능성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본다.

2.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배경

2.1. 구조주의의 영향

(1) 초기 연구와 구조주의의 영향

크리스티안 노르베르크-슐츠³⁾는 노르웨이 오슬로 출신으로 1949년 취리히 연방공대를 졸업했고 이후 로마에서 연구했으며,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하버드 건축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그는 1960년대 구조주의 특히 기호학에 크게 감명을 받아, 이를 자신의 노르웨이 공대 박사학위 논문인 ‘건축의 의도(Intentions in Architecture)(1963)’에 반영하여 건축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종의 건축적 구조”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는 ‘건축적 기호학’의 제안으로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기호학(C. Morris), 지각 심리학(Piaget, Brunswick), 게셀타트 이론(Wertheimer, Bollnow) 사회학(Parsons), 철학(Cassirer, Wittgenstein)과 예술사(Panovsky, Gombrich, Sedlmayr) 등을 참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게쉬탈트 이론과 지각 심리학으로부터 ‘형상’ 개념을 가지고 왔고, 특히 ‘지각의 사회화’와 ‘아동 심리학’의 선구자인 장 피아제의 연구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 중, 장 피아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일종의 지각 방법인 “도식화(schematization)”를 자신의 연구에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다.⁴⁾ 다른 한편, 1960년대 초 학생 신분 및 1974년 MIT 방문교수로 미국에 있었던 시기에, 아르하임(Rudolf

Arnheim), 케페스(Gyorgy Kepes), 린치(Kevin Lynch) 등 구조주의 성향이 강한 건축이론가들의 영향을 받았다.⁵⁾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립된, 노르베르크-슐츠의 초기 건축 이론의 성격은 ‘구조주의 기호학을 통한 건축의 의미 강조’로 요약할 수 있다.

(2) 건축 현상학 연구와 구조주의의 영향

구조주의는 현상학의 기반이 되는 ‘의식과 자유’, ‘정신적 의미’ 등 독립적 주체를 경시하고, 대신 구성 요소들의 관계인 체계를 대상으로 그 일반적인 법칙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철학에서는 현상학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으로서 구조주의가 출현한 반면, 건축분야에서는 오히려 구조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현상학이 등장하는 상반된 상황을 보인다. 노르베르크-슐츠는 건축분야에서의 이러한 역행적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다.⁶⁾

노르베르크-슐츠가 자신의 이론 틀을 구조주의 기호학에서 현상학으로 전환한 것은 ‘실존, 공간, 건축(1971)’에서부터였다. 이 책에서 그는 ‘쉐마타와 중심, 경로, 영역’에 의해 구조화된 이른바 ‘실존적 공간’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의 근거로, 노르베르크-슐츠는 현상학이 삶과 장소의 통합체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심리학과 사회학보다 우월하고, 사물 그 자체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호학보다도 우수하다고 주장한다.⁷⁾

환언하면, ‘건축의 의도(1963)’에서 시도한 ‘과학적’ 분석 이후, ‘실존, 공간, 건축(1971)’에서는 현상학과 구조주의 기호학의 결합 즉 ‘존재’와 ‘의미’를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⁸⁾ 이후의 작업인 ‘거주의 개념(1985)’ 역시 연구 배경으로 기호학 및 행태주의 틀을 갖고 있다.⁹⁾ 이렇듯, 노르베르크-슐츠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주장, 즉 현상학이 자신의 건축이론에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인간을 과학적,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구조주의적 태도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구조주의와 현상학이 결합된 자신만의 특유한 건축 현상학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모순적인 공존은 이후 많은 논란을 발생시키게 된다.

5) Jonathan Hale, Critical Phenomenology on architecture, technology and the body, bodyoftheory, May 20, 2012

6) ‘철학과 인문학에서는 1960년대 구조주의가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현상학의 쇠퇴가 이루어진 반면, 건축 분야에서는 구조주의가 쇠퇴한 이후 현상학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렇듯 모호한 상황은 철학적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된 순간과 건축 영역으로 전환되는 시간 간의 지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Elie Haddad, Christian Norberg-Schulz’s Phenomenological Project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Theory Review, Volume 15 Issue 1, 2010, p.88

7) Shirazi, Mohammad Reza, Architectural Theory and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Phenomenology, Iran, 2009, p.60

8) 자신의 책 “the philosophy of Heidegger has been the catalyst”에서 밝히고 있다 Ole Møystad, The spirit of pla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Architecture Norway, 2012.8

9) 노르베르크-슐츠는 자신의 책 ‘Architecture: Presence, Language and Place’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3) 1964년 노르웨이 공대에서 박사학위 수여, 1965년에서 1992년까지는 오슬로 건축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4) Farah Habib; Sayyed Khosro Sahhaf, Christian Norberg-Schulz and the Existential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e and Urban Development, Vol.1 No.3, Winter, 2012, p.46

2.2. 하이데거의 영향

(1) 하이데거와 건축

건축 현상학은 전적으로 ‘시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경험’을 중시한 하이데거의 현상학이 건축에 도입됨으로써 이루어졌다. 하이데거는 훗설(Edmund Husserl)의 ‘사물 자체로의 회귀(return to things)’에 따른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¹⁰과는 달리, 장소와 인간 실존의 본질을 중시하는 관점과 방법으로 자신의 현상학을 발전시켰다. 하이데거는 구체적이고 경계가 있는 생활 공간을,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이면서 연속적인 데카르트 식의 공간과 분리시킨다.¹¹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은 자신의 주요 저작인 ‘존재와 시간(1927)’에서 제기되어, 이후 ‘예술 작업의 기원(1935)’, ‘기술에 대한 의문(1949)’을 거친 후 ‘짓기, 거주하기, 생각하기(1952)’에서 명확해진다.¹²

하이데거는, 데카르트 이래 근대의 정량적 세계관이 삶의 축소와 의미상실이라는 위기를 초래시켰으며, 이의 해결은, 모든 현상을 인식론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에서 밝혀내는데 있다고 주장한다.¹³ 그는 또한 이러한 현상학적 방법이 사물의 ‘물성’을 드러내어, 과학적 방법과 분석에 의한 환원 없이도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¹⁴ 이렇듯, 하이데거는 철학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존재론을 새롭게 등장시켰는데, 특히, ‘짓기, 거주하기, 생각하기’를 통하여 ‘거주가 개념적으로 존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¹⁵ 왜냐하면, 삶의 근본 목적인 거주이고,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함도 거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거주의 현상’ 개념은 현상학이 철학적 중요성을 갖는 전환점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과 장소를 매개로 건축과도 연결된다. 이에 따라 모더니즘 건축을 비판했던 이들에게 데카르트의 보편적 공간 개념을 거부한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중요한 철학적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¹⁶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비록 하이데거 자신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건축을 존재의 본질로 언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상학은 건축에 도입되어 건축 이론과 실무 모두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경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2) 하이데거와 노르베르크-슐츠

말퍼스(Malpas)에 의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축 이론가들은 하이데거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¹⁷ 이들 중, 노르베르크-슐츠는 현상학자들이 주로 미학에만 관심을 갖고, 실생활의 무대인 건축에 무관심했음을 비판하고, 건축 분야에 있어 현상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¹⁸ 훗설의 현상학이, 순수의식을 통해 대상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직관적 방식이었다면,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은 건축 작업 자체를 구체적인 실존 대상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노르베르크-슐츠가 보기에 현상학은 일상 존재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고,¹⁹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존재, 세계, 진리, 거주’에 대한 해석이, 자신의 건축이론을 전개시키는데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해왔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²⁰ 그 결과,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하이데거의 예술작품, 진리, 세계, 존재에 대한 사고와 그 궤를 같이한다.²¹ 특히 노르베르크-슐츠의 장소와 건축에 대한 이해는 하이데거의 ‘거주’, ‘모임(gathering)’, ‘사물(thing)’ 개념을 건축분야로 확장시킨 것²²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은 건축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고²³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르베르크-슐츠는 하이데거의 예술철학과 그의 공간론에 의해 회복된 장소의 개념을 건축에 도입하였고, 중국에는 기호학과 현상학의 건축적 결합, 즉 건축에서 ‘의미를 갖는 존재’를 추구하는 자신만의 건축 현상학을 제안할 수 있었다.

3.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전개

3.1.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시기별 진행

(1) 1기 1970년대: 시작기

10) Nebojša Grubor, "Hajdegerova kritika Huserlove fenomenološke redukcije," *Theoria* 4, 2009, p.522
11) Vladimir Stevanović, *Phenomenologies of Architecture*, SAJ 2014, 6, p.92
12) Mor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p.209
13) 이종관, *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p.123
14) Guo Jianhui, *No More Heidegger; No More Genius Loci: a Poststructuralist View of Place*, *Journal of environment and art*, 2006.5, p.49
15) Laura Clark Wagner, *Some Limits of Phenomenology in Architecture* Fall 2009, p.1
16) *What is Phenomenology?* vol2 belief issue 3, 2014.5. p.17

17) 헤리스(Karsten Harries), 프램턴(Kenneth Frampton), 노르베르크-슐츠 등이 대표적 학자들이다. Rowan Wilken, *The Critical Reception of Christian Norberg-Schulz's Writings on Heidegger and Place*, *Architectural Theory Review*, 18:3, 2013, p.341
18) "현상학자들은 주로 존재론, 심리학, 윤리학, 미학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상 환경의 현상학에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Norberg-schulz, op. cit., 1980, p.8
19) Norberg-Schulz, *Architecture: Presence, Language, Place*, Skira, Milan, 2000, p.15
20) Reza Shirazi, *On Phenomenological Discourse in Architecture*, *EAP*, 2012 Fall, vol.23 No.3, p.13
21) "지니어스 로사이: 건축 현상학을 향하여"(1980)에서 노르베르크-슐츠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책의 서문에 명확히 밝힌다. 이 책은 장소를 인공과 자연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성을 각각 '현상, 구조, 정신'의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으며, 프라하, 로마 등 옛 도시들을 '의미, 정체성, 역사' 측면에서 정리하여 보여준다.
22) Martin Heidegger,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 Albert Hofstadter, New York: Harper and Row, 1971 참조
23)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Praeger Publishers, London, 1971, p.7

구조주의 기호학의 강한 영향을 받았던 1960년대 연구와는 달리, 1970년대에 이르러 노르베르크-슐츠는 하이데거의 현상학 이론을 도입하여 자신만의 건축 현상학을 시작한다. 그 배경은 바로 당시 심각해지고 있던 근대건축의 문제에 대한 직시와 이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에 있었다. 노르베르크-슐츠는 근대건축의 위기가 근대건축이 갖는 ‘합리적, 인식론적, 과학적, 분석적, 환원적’ 성격의 과도한 강조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적, 존재론적, 종합적, 본질적’ 성격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 즉 현상학적 방법을 도입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실존, 공간, 건축(1971)’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은 ‘중심, 길, 영역’ 등으로 구조화된 공간을 통해 실존하며, 이는 현실에서 구조화된 건축공간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의 실존 공간 개념은 이후, ‘서양 건축의 의미(1975)’에서 유럽 건축사의 분석 도구로서의 장소 개념과 결합되었는데 이를 통해, 실제 사례를 근거로 건축 현상학의 기본 요소인 실존 공간의 개념을 정립시켰다.

(2) 2기 1980년대: 체계화기

1980년대는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본격화 시기로서, ‘지니어스 로사이(1980)’, ‘거주의 개념(1985)’ 등 저작을 통하여 그 방향성과 내용을 체계화하고 있다. ‘지니어스 로사이’의 부제인 ‘건축 현상학을 향하여’와 ‘거주의 개념’ 부제인 ‘형상적 건축 방법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용을 잘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1기가 하이데거 개념의 도입과 정착이라면, 2기는 ‘장소’와 ‘거주’ 즉 ‘환경’과 ‘건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짓기, 거주하기, 사고하기’에 나타난 ‘존재와 본질, 거주’에 대한 하이데거의 견해를 도입하면서 그의 이론은 체계화된다. 특히, 하이데거의 거주 개념은 인간 존재의 기본 전제로서, 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배경에는 환경 즉, 장소가 위치한다. 따라서, 장소는 ‘인간, 거주, 실존 공간’을 포괄하며,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중심으로 작용하게 된다.

(3) 3기 1990년대 이후: 쇠퇴와 가능성

1990년대에 이르면, 포스트모던 건축의 쇠퇴와 함께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 역시 급격히 그 영향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노르베르크-슐츠는 ‘장소의 기술(The Art of Place, 1995)’과, ‘밤의 대지(Nattlandene, 1997)’와 ‘건축: 현존, 언어, 장소(Architecture: Presence, Language, Place, 2000)’ 등 지속적인 저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계속하여 전개시켰다. 그 결과, 2기의 연구가 주로 건축 현상학 이론의 정립과 일반화에 집중되었다면, 3기에서는 북유럽 특히 자신의 모국인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특정 장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북 유럽의 건축 역사와 건물을 자연, 민족, 모더니즘 및 지역의 관점에서 재조명

하는 연구와 ‘인간과 공간(현존)’, ‘디자인과 도구(언어)’, ‘환경과 건축의 관계(장소)’ 등 현대 디자인의 중심이 되는 양식들을 비교하고 해석하여 이전의 논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노르베르크-슐츠의 주요 저서 및 내용

저작명	주요 저서 및 내용
17)	Intensions in Architecture, 1965. 계위탈트 심리학, 기호론 등 구조주의 관점에서 건축의 형태와 의미 해석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1971. 하이데거의 ‘거주 개념’ 도입으로 ‘장소의 건축’ 주장, 지역 문화와 장소 회복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공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1973. 인간과 환경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수단으로서의 건축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찰
27)	Genius Loci, 1980. 고대 로마의 장소 개념인 ‘지니어스 로사이’ 개념을 현대에 도입한 환경, 장소, 거주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Concept of Dwelling, 1985. 하이데거의 거주 ‘wohnen’ 개념을 건축관으로 작업
	Nightlands. Nordic Building, 1997. 북유럽의 건축 역사와 건물을 자연, 민족, 모더니즘, 지역 등의 관점에서 조명
37)	Principles of Modern Architecture, 2000. 근대 건축 배후의 기본 원리와 아이디어 및 이론적 기반의 심화 연구
	Architecture: Presence, Language, Place, 2000. 현상학을 토대로 인간과 공간(현존), 디자인과 도구(언어), 환경과 건축의 관계(장소) 등 현대 디자인의 중심이 되는 양식들을 비교하고 해석

3.2.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주요 내용

(1) 실존 공간론: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시작

노르베르크-슐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의 공간적 이미지를 구축하며, 이것이 ‘실존적 공간’이 된다. 그는 기존의 공간론이 인간을 고려함 없이 추상적 접근을 취하거나 또는 단순히 인상, 감상 등 인간의 감정만을 과도히 강조한다고 비판한다.²⁴⁾ 대신, 구조주의 심리학자인 피아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을 “근접, 분리, 연계, 폐쇄 및 연속” 등 위상학적 관계의 모임을 정의한다. 그 결과 공간은 ‘중심’이 되는 ‘장소(proximity)’, ‘방향’을 의미하는 ‘길(continuity)’, ‘지역’ 즉 ‘영역(enclosure)’의 기본적인 구성을 갖는다.²⁵⁾ 이때, ‘장소, 길, 영역’은 건축적 공간에서는 ‘결절점, 축, 지역’으로 나타나고. 그리하여, 실존적 공간의 구조는 ‘장소(place)’, ‘길(path)’, 그리고 ‘지역(domains)’의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 장소는 인간 행동의 중심이며, 통로는 환경 점유의 가능성을 묘사하고, 영역은 가까운 혹은 먼 구역을 질적으로 규정한 것이다.²⁶⁾ 이때 ‘실존적 공간’은 ‘정향(orientation)’와 ‘정체성(identity)’ 개념 하에 인간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²⁷⁾ 그리고, 건축 공간은 실존적 공간이 ‘구체화’된 것인데, 인간 존재의 심리적 구조로서의 실존적 공간은, 물리적 구조에서 건축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건축 공간은 세상에서 인간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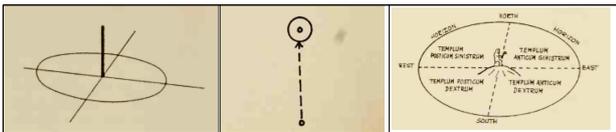
24) “두 경우 모두 실존적 차원으로서의 공간,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로서의 공간은 잊혀져 있다” Norberg-Schulz, op. cit., 1971, p.14

25) Norberg-Schulz, op. cit., 1971, p.18

26) Schulz, Baroque Architecture. Rizzoli, 1979, pp.17-18

27) Mitrovic Branko, Philosophy for Architects, 이충호 옮김, 건축을 위한 철학, 컬처그라퍼, 2013, p.192

제가 구체화된 결과물이다. 다른 한편, 노르베르크-슐츠는 이러한 ‘실존적 공간’을 ‘지형, 풍경, 도시 차원, 주택과 사물’의 4가지 레벨로 규명하여,²⁸⁾ 인공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환경을 실존적 공간의 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실존적 공간성은 언어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내-존재’의 현상학적 탐구는 새로운 장소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실질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²⁹⁾고 주장하여, 이를 이후 장소 이론에 연결시킨다. 이렇듯, 노르베르크-슐츠는 사유나 지각의 차원이 아닌, 인간 실존으로서 이해되는 공간 이론을 확립하려고 의도했다.



<그림 1> 실존 공간의 도식, 세계의 축, 고대인의 영역체계

(2) 장소 이론: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중심

“모든 존재는 자체의 수호 정신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과 장소에 삶을 제공하고 그들의 성격을 결정한다.”³⁰⁾는 노르베르크-슐츠의 장소론은, 장소의 존재론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소와 필수적으로 결합되는 인간 실존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³¹⁾ ‘장소 이론’의 출현 배경은 첫 번째, 국제주의 양식이 지역성을 무시하고 동일 원리를 강요하여 획일적인 환경을 만든 것과, 두 번째 근대 건축이 ‘개방 평면’ 개념을 도시 차원까지 확대시켜 장소 상실의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있다. 노르베르크-슐츠는 근대건축에서 발생하는 ‘장소 상실’이 구체적 장소를 계량화가 가능한 추상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경향에 있다고 보았다.³²⁾ 그는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장소를 규명할 때, ‘세계 내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헌신하게 된다.”³³⁾는 하이데거의 주장을 수용한다. 이렇듯, 노르베르크-슐츠는 근대 건축의 ‘장소 상실’에 주목하고, 이의 회복을 위해 ‘장소의 정신’, ‘장소의 감각’, ‘장소의 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³⁴⁾ 모든 장소의 독특함과 개별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역사적으로 명확한 건조 환경과 자연 세계 간의 연결을 강조했다. 이것은 ‘장소-만들기’와 ‘자체 장소의 정신’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이 때 건축의 역할은 “장소의 정신을 시각화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며, 건축가의 임무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³⁵⁾ 즉, 건물을 세우고 건축하는 것에 의해 인간은 주어진 대지와 장소의 ‘지니어스 로사이’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여 건축 현상학이 갖는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3) 거주이론: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구체화

노르베르크-슐츠는 직접적으로 하이데거의 ‘거주’ 개념을 인용하여, ‘형상적(figurative) 건축’과 결합된 거주 이론을 제시한다. 그가 하이데거의 거주 개념을 강조한 것은, 그의 현상학적 사유를 매개로 ‘존재-거주-건축-장소’의 연관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지 위함이었다. 노르베르크-슐츠는 이러한 거주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거주를 ‘정착지, 도시 공간, 기관, 주택’의 4 종류로 분류한다. ‘정착지(Settlement)’는 거주의 첫 번째 장소이고 “자연적 거주”가 발생하는 단계로서 이곳은, “인간이 생산물, 아이디어, 감정을 교환”하고 조우하는 장소이다.³⁶⁾ ‘도시 공간’은 다양한 모든 인간이 모이는 단계로서 ‘집합 거주’를 만들어내는 곳이며, ‘기관(institution)’은 가치를 보존하고 친교나 사회를 구성하는 장소 즉 공공 건물들이다. 다른 한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의 격리를 암시하는 ‘사적 거주’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주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거주의 4가지 양상은 ‘형태학, 위상학, 유형학’의 건축적 언어 즉 형상적 건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장소와 결합된 거주를 건축의 본질로 간주³⁷⁾하는데, 이때 건축은 장소의 구성 요소이자 공간, 장소, 거주의 연계점으로 작용한다. 즉, 인간과 장소의 관계는 거주를 통해 형성되고,³⁸⁾ 건축과정은 공간을 만들고 연결하여 장소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여, ‘인간-장소-거주-건축-공간’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아울러, ‘형상적 건축으로의 회귀’³⁹⁾는, 건축의 시적(poetic) 차원을 재발견하는 촉매가 되어 거주의 회복을 이끌게 된다고 주장하는데,⁴⁰⁾ 왜냐하면, 획일성과 시각적

28) Farah Habib, op. cit., p.46
 29) Norberg-Schulz, Roots of Modern Architecture, A.D.A. 1988, p.193
 30) Norberg-Schulz, Kahn, Heidegger and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Vol 18 p.45
 31) Guo Jianhui, op. cit., p.48
 32) Mitrovic Branko, Philosophy for Architects, 이충호 옮김, 건축을 위한 철학, 컬처그래퍼, 2013, p.192
 33) Norberg-Schulz, op. cit., 1985, p.63
 34) 노르베르크-슐츠에 의하면, 장소의 정신은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 다양한 기후적, 계절적 조건, 2) 대지, 하늘, 지평선 등 이미 하이데거에 의해 설명된 질료 형상적 hylomorphic 구성, 3) 벽, 문, 지붕 등 상식적이고 이해가능한 건축적 요소 형태의 특성 있는 모티프Vladimir Stevanović, Phenomenologies of Architecture, SAJ 2014.6, p.93

35) Norberg-Schulz,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80, p.5
 36) Norberg-Schulz, Concept of Dwelling, Rizzoli, 1985. p.13
 37) Norberg-Schulz, Stanovanje, Stanište, urbani prostor, kuća (Beograd, Građevinska knjiga, 1990), pp.9-12
 38) Mitrovic Branko, op. cit., p.177
 39)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로 명명된 또 다른 에세이에서, Venturi, Graves and Botta 등 최근 포스트모더니스트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한다. Norberg-Schulz,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in Norberg-Schulz, op. cit., 1988, pp.233-245
 40) Norberg-Schulz, op. cit., 1985, p.135

결핍을 보여주는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극복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형상적 건축으로의 회귀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그림 2> 형상적 건축의 사례, Venturi, Graves, Botta의 건축작업

4.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의의

4.1.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한계

(1) 하이데거 해석의 한계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이론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구조화’ 시도이다. 예를 들어, 실존적 공간을 ‘장소, 길, 영역’의 체계로 해석하거나 장소성의 표출방식 분석을 위한 세 가지의 기초개념-유형학, 위상학, 형태학-은 구조화된 인식 틀이라 볼 수 있다.⁴²⁾ 그런데,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에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주의 프레임은, 현상학이 시도하는 ‘정신/신체’의 이중성 극복을 어렵게 만든다.⁴³⁾ 특히, 하이데거의 사유를 구조적 측면에서 해석함으로써, 내용 상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조화에 따른 논리의 경직성, 획일성, 고정성 등에 의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역시 드러낸다.

노르베르크-슐츠가 건축에 도입한 하이데거의 견해는 공간과 장소 사이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수의 학자들은, 노르베르크-슐츠의 하이데거 해석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해왔다. 예를 들어, 시먼(David Seamon)이 지적하듯, 하이데거의 ‘모임(gathering)’, ‘거주’, ‘사물’ 개념은 건축의 이해나 ‘장소-만들기’를 위한 도구로 손쉽게 전환하기 힘들다.⁴⁴⁾ 왜냐하면, 다른 콘텍스트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나 개념의 수용은 필수적으로 변환 작업을 포함⁴⁵⁾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하이넨(Hilde Heynen)은 노르베르크-슐츠가 하이데거의 사유를 건축형태의 문제로 단순하게 축소시켜⁴⁶⁾ 포스트모던 건축 이론의 배경으로 사용했다고 비판

한다.⁴⁷⁾ 특히, 이러한 형상적 건축의 필요 주장에 대해서, 아담 샤(Adam Sharr)는 모더니즘의 진정한 문제는 근대 주택에 있어서 이해 가능한 형태의 상실이 아니라 현대인이 이미 하이데거에 의해 설명되었던 거주 능력을 상실한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⁴⁸⁾ 이렇듯, 노르베르크-슐츠의 하이데거 해석은 현상학을 특정한 형태를 위한 해결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사회 경제적 요소의 간과

현상학이 비판받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물 그 자체를 제외한 요소들에 대한 의도적 배제에 있다. 즉, 현상을 ‘사물의 본성(the thingness of things)’ 강조에 의해 내부 본질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갖는다. 그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액자 틀과 같아서, 발생하는 삶을 위한 특정 ‘공간’을 제공하지만 그것의 실존적 의미를 결정하지는 않는다.”⁴⁹⁾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장소 또한 사회적 구조 관계의 산물임을 간과하는 것이다.

현상학에서는 장소의 정체성을 개인의 경험과 성찰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건축적 환경적 의미들의 무엇이 장소의 문화적 사회적 차원과 관계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노르베르크-슐츠의 글에는 대체로 결여되어 있다.⁵⁰⁾ 이것은 장소의 정체성을, 특정 역사적 순간에 등장하는 다수의 사회적 의존의 결과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감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산물이다.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장소의 형태를 형성하며 거주와 우리의 실존에 의미를 제공하는 사회적 측면을 외면하는 ‘존재론적 방식’⁵¹⁾은 후기구조주의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박되어 왔던 사항이기도 하다.

(3) 체험적 부분의 간과

오늘날 건축 현상학은 큰 흐름은 하이데거 계열과 메를로-퐁티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⁵²⁾ 노르베르크-슐츠는 하이데거 계열의 대표적 학자로서 건축의 존재와 장소를 강조한다.

반면 메를로-퐁티 계열에는 팔라스마를 필두로 스티븐 홀 등이 위치하고 지각을 통한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남을 지적한다. 노르베르크-슐츠가 하이데거의 사유를 ‘이상적-과거회고적(utopian-nostalgic)’으로 본 반면, 카치아리는 ‘비판적-급진적(critical-radical)’으로 간주한다. Hilde Heynen, *Architecture and Modernity*, Cambridge, MA: MIT Press, 1999. p.28

47) Jorge Otero-Pailos, *Architecture's Historical Turn: Phenomenology and the Rise of the Postmodern*,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48) Adam Sharr, *Heidegger for Architects*, 67.; Elie Haddad, "Christian Norberg-Schulz's phenomenological project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Theory Review* 15/1, 2010, p.96

49) Norberg-Schulz, op. cit., 1980. p.6

50) Akkelies van Nes, op. cit., 2012, winter

51) Guo Jianhui, op. cit., p.51

52) 정태용, op. cit., pp.44-45

41) Vladimir Stevanović, op. cit., p.98

42) 이승현, 이동연, op. cit., p.150

43) Elie Haddad, op. cit., p.97

44) David Seamon, "Concretizing Heidegger's Notion of Dwelling: The Contributions of Thomas Thiis-Evensen and Christopher Alexander", *Wolkenkuckucksheim, Cloud-Cuckoo-Land, Vozdushnyj Zamok: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Theory*, 2 (1998),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Jeff Malpas, *Heidegger's Topology: Being, Place, World*, Cambridge, MA: MIT Press, 2006. 참조

45) Joe Moran, *Interdisciplinarity*, London: Routledge, 2002. 참조

46) 하이데거의 사유에 대한 해석이 건축학자들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

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노르베르크-슐츠는 지각적 체험의 중시 즉, 건물 내 혹은 건물 주변을 움직이는 이른바 실존적 몸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신의 글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일련의 사진들을 살펴보면, 정면과 볼륨을 강조하는 건축물만을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항상 강조한 것은 '건물의 몸(대상)'이지 '관찰자의 몸(주체)'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노르베르크-슐츠의 이론에서 장소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는 장소와 관련된 건물의 문제로 축소된다. 이것은 노르베르크-슐츠가 건축과 장소의 관계는 중시했지만, 건축과 인간 신체와의 관계는 경시했음을 보여준다.⁵³⁾ 이러한 맥락에는 인간이 항상 건축적 공간의 중심이고 건축 공간은 인간 신체의 움직임에 의존하여 변화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그의 의견이 작용한다. 건축적 공간은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체만의 중심과 방향을 갖는다.⁵⁴⁾ 앞에서 언급한 노르베르크-슐츠의 사진들은 거의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노르베르크-슐츠가 프렘턴과 팔라스마의 건축 현상학에서 강조하는 디테일과 촉각뿐만 아니라, 바실라리의 현상학적 주장인 '내부 분위기'와 '친근감' 역시 무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⁵⁵⁾



<그림 3> '지니어스 로사이'에 사용된 사진 예. p.62 라치오의 원형마을, p.75 아크로폴리스, p.81 프라하의 옛 거리

이러한 계열별 차이는 장소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노르베르크-슐츠가 장소의 의미와 지형, 기후, 빛과 같은 지리 환경적 조건을 강조했다면, 메를로-퐁티 계열을 대표하는 스티븐 홀은 '앵커링'을 통해 장소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광범위한 참조를 다룬다. 홀은, "장소의 의미는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실존적 잠재성을 갖는다. 그것은 상대적이고 관찰자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험상의 상태"⁵⁶⁾라고 주장하여 노르베르크-슐츠의 구조화된 장소론과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이렇듯, 경험 주체에 대한 무시는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을 장소와 형태의 물리적이고 고정적인 상황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

4.2.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의의

(1) 건축이론의 영역 확대

53) Vladimir Stevanović, op. cit., p.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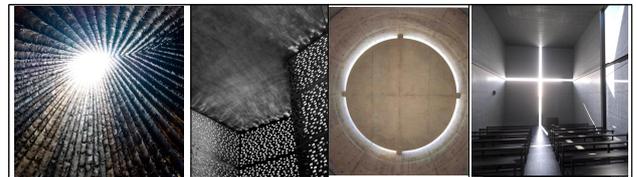
54) Norberg-Schulz, op. cit., 1971, p.13

55) Vladimir Stevanović, op. cit., p.96

56) Steven Holl, Anchoring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pp.9-10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현상학을 건축에 도입하여 건축이론의 지평을 확장시켰다는데 있다. 근대건축의 한계가 명확해진 시기에 노르베르크-슐츠는 근대건축이 갖는 물질적, 계량적 측면의 과학적 접근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상학의 도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라고 주장했다.⁵⁷⁾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축 현상학의 가능성은, 노우드(Brian Norwood)가 지적하듯, "건축적 방법으로서 현상학이 갖고 있는 주의 깊고, 비판적이며 자기 반성적인 측면"⁵⁸⁾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베르크-슐츠는 현상학을 철학의 일종이 아니라 방법으로 간주하여, "도시 조직"의 파괴로부터 장소와 성격의 상실에 이르는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으로 만들었다.⁵⁹⁾ 그것은 장소의 존재론적 본질을 중시하는 노르베르크-슐츠의 현상학적 건축관이, 건축의 기술과 발전에 있어서 제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론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이후, 케네스 프렘턴, 페레즈-고메즈로 연결되는 이른바 하이데거 계열의 건축 현상학자들 뿐만 아니라, 건축의 존재와 구축성을 강조하는 페테르 춤터, 안도 타다오 등 건축가들의 작품과 이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은 형식적 구조에 의한 획일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건축에 현상학을 도입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차후 적용을 위한 토대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그림 4> 페터 춤터, 브루더 클라우스 체플, 콜롬바 뮤지엄, 안도 타다오 명상의 공간, 빛의 교회 내부

(2) 포스트모던 건축과의 관계

노르베르크-슐츠가 자신의 초기 작업인 '건축의 의도(1963)'에서 주장한 '형태와 의미'의 강조는 현상학 도입 이후에도 그의 모든 저술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의미론'과 '구문론'에 기초하였던 포스트모던 건축 이론의 전개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엘리트와 대중의 이중 코드를 기반으로 '의미를 제공하는 건축 형태'를 강조한 벤투리의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1966)'이 대표적으로 연관이 있다.

또한, 도시 형태학과 건물 유형학을 기반으로 하는 알

57) Seamon, David eds.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towards a Phenomenology of Person and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58) Norwood, review "Architecture's Historical Turn", Harvard Design Magazine 33 Fall/Winter 2010-2011, p.2

59) Elie Haddad, op. cit., p.95

도 로시의 '도시의 건축(1967)'은 '유형학'을 하나의 이론 전개 방법으로 사용한 노르베르크-슐츠의 '거주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건물의 형태 구성에 대한 포스트모던 건축의 대표 이론들은 '의미론'을 배경으로 노르베르크-슐츠의 이론과 관련을 갖는다. 하지만, 노르베르크-슐츠는 포스트모던 건축의 일부 과도한 역사주의적 및 향수적 경향을 경계하고, 대신 의미 있는 형태의 언어 발견을 요구했다. 다른 한편, 그의 장소론은 근대건축이 초래한 '장소 상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 건축의 도시, 지역, 환경 분야의 주요 배경 이론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보편성'과 '추상성'을 강조하여 환경과 건축의 획일성을 낳은 교조적인 근대건축을 반대한 것으로서 포스트모던 건축의 기본적인 성격과 부합된다. 이러한 이유로 체계화된 그의 건축 현상학은 라바투(Jean Labatut, 1899-1986), 찰스 무어, 케네스 프랜턴 등과 함께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기에 서구 건축문화를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평가받는다.⁶⁰⁾

(3) 지역주의 건축의 가능성 재발견

종래의 지역주의 건축을 재발견한 것은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또 다른 의의이다. 포스트모던 건축의 주요 이론으로 또한 실행 방법으로서, 그의 새로운 지역주의 건축은 과거의 건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의 지속적인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⁶¹⁾ 그가 말하는 지역주의 건축은 "토속주의나 민족주의적인 건물이 아니라, '장소의 구성 요소'로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⁶²⁾ 그러므로 "의미 있는 전통의 형태 언어를 가정하면서, 또한 지역의 상황적 측면을 강조"⁶³⁾ 해야 하는 것이 된다. 노르베르크-슐츠는 새로운 지역주의가 "주변"에 위치하고 인간의 '세계-내-존재'에 즉각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현상학적 접근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건물의 형상적 특성을 강조하여 장소의 정신을 보존하려했던 노르베르크-슐츠의 시도가, 오늘날 지역과 장소와 관련된 문제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 현상학이 종래의 지역주의 건축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정책적 적용 가능성: 노르웨이의 예

노르베르크-슐츠는 자신의 건축 현상학을 단순히 이론에 한정시키지 않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우선 건축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을 노르웨이 정부에 알리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의 미학적 성질에 대한 고려가 정책 과정에 포함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노르웨이 정부는 '환경 미학'을 수행할 조직을 만들게 된다.⁶⁴⁾ 그 결과, 1993년 노르웨이 환경부는 노르베르크-슐츠의 이론에 근거한 '장소 분석(Place Analysis)' 가이드를 공식화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노르웨이의 마을과 지방 자치체는 도시 계획과 디자인 과정에서 '장소 분석'을 수행하여야 했다.⁶⁵⁾ 이러한 노르웨이의 지난 30년간에 걸친 정책 노력의 근간에는 의미 있는 환경은 장소에 근거하여야만 형성될 수 있다는 이해가 있었다. 노르베르크-슐츠가 제시한 환경 조성 상에 있어서 선결 과제는 '장소의 상실'에 대한 이해였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장소 분석'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장소 지식(Knowledge of Place)'에 근거한 '장소 개발'로 연결된다.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에 근거한 노르웨이의 장소 조성을 위한 정책적 수행 사례는, 이론이 실천적 의미를 갖는 하나의 예로써, 그의 장소론이 갖는 근본 취지를 토대로 개념과 사고를 재고려하고 그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논의한다면, 현대 건축 분야에서도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노르베르크-슐츠 건축 현상학의 의의와 한계

항목	주요 내용	
한계	하이데거 해석의 한계	하이데거 사유의 구조적 해석에 따른 논리의 경직성, 획일성 발생. 건축형태 문제로의 축소화에 따른 도구화
	사회경제적 요소 간과	사물 그 자체를 제외한 요소의 의도적 배제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간과. 장소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 결여
의의	체험적 부분의 간과	건축과 인간 신체와의 관계 결시. 건축의 지각적 측면 간과 건물 주변을 움직이는 실존적 신체 무시
	건축이론의 영역 확대	근대건축의 한계 극복을 위한 현상학의 도입으로 건축 이론의 지평 확대. 팔라스마, 페레즈-고메즈 등 건축 현상학자에 영향
	포스트모던 건축 영향	건축의 의미 강조에 따른 근대건축의 한계 극복
	지역주의 건축 재고	포스트모던 건축의 도시, 지역, 환경 분야의 배경이론으로 작용
정책적 적용 가능성	지역주의 건축 재고	기존의 토속적, 민족적 지역주의에 대해 장소의 강조를 통한 지역주의의 새로운 해석. 건물의 형상적 특성을 강조
	정책적 적용 가능성	건축의 문화적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 장소 분석, 장소 지식, 장소 개발로 연결시켜 도시 계획과 디자인 과정에 반영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은 하이데거의 현상학, 특히 거주의 개념을 반영한 '공간론-장소론-거주론'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정의-개념-방법'의 내용과 대

60) Jorge Otero-Pailos, Architecture's Historical Turn: Phenomenology and the rise of the Postmodern, Univ. of Minnesota Press, 2010, xi.

61) "새로운 지역주의는 환원하면 향수적이라기보다 창조적이다." Norberg-Schulz, Roots of Modern Architecture, 1988, A.D.A., p.151

62) Norberg-Schulz, op. cit., 2000, p.8

63) Norberg-Schulz, op. cit., 1988, p.23

64) Ole Møystad, Rethinking Pla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Made in Norway, GmbH, 2016, p.136

65) "계획 내 프로젝트 심사와 개발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서 '장소 분석'이 제시되었다." Ole Møystad, op. cit., p.138

응된다. ‘공간’은 실존적 공간과 이의 건축적 구현 및 의미를 대상으로서 자신의 건축 현상학을 위한 개념 정립과 이론화의 시작이었고, ‘장소’는 ‘지니어스 로사이’ 개념을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실존 공간을 환경으로서 구현한 것이다. ‘거주’에서는 인간 존재의 구현방식으로서의 거주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형상적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론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은 구조주의 특히 기호론의 영향으로 인하여, 구조주의와 현상학이라는 철학적으로는 상반된 성향의 내용을 건축 안에서 통합해야 하는 모순을 내포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하이데거 현상학에 대한 그의 건축적 해석은 구조화라는 경직성으로 인한 도구화의 위험성과 함께, 신체의 움직임과 사회 경제적 요소를 간과했다는 한계 역시 갖는다.

셋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 현상학은, 고착화된 근대 건축 이론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었던 작업으로서, 포스트모던 건축의 주요 이론 중 하나로 작용하여, 단일 건축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넷째, 장소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종래의 지역주의 건축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적용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은 그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또 다른 의의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노르베르크-슐츠가 자신의 건축 현상학을 정립하기 이전의 초기 작업과 말년까지의 이론 작업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또한, 이론의 주요 내용 외에 이들의 형성 과정과 배경까지를 살펴봄으로써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특성과 한계를 밝히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장소론 중심의 기존 연구의 틀을 넘어서서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El-Bizri, Nader, "Being at Home Among Things: Heidegger's Reflections on Dwelling", *Environment, Space, Place* Vol.3 2011
2. Harries, Karsten, *The Ethical Function of Architecture*, MIT Press, 1997
3. Jianhui, Guo, No More Heidegger: No More Genius Loci: a Post-structuralist View of Place, *Journal of environment and art*, 2006.5
4. Møystad, Ole, *Rethinking Pla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Made in Norway*, GmbH, 2016
5. Nes, Akkelies van, Between Heaven & Earth Christian Norberg-Schulz's Contribution to the Phenomenology of Place & Architecture, *Environmental & Architectural Phenomenology Newsletter*, 2012, winter

6. Nesbitt, K.,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7. Norberg-Schulz, *Architecture: Presence, Language, Place*, Skira, Milan, 2000
8. Norberg-Schulz, *Baroque Architecture*, Rizzoli, Milan, 1979
9. Norberg-Schulz, *Concept of Dwelling*, Rizzoli, 1985
10.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Praeger Publishers, London, 1971
11. Norberg-Schulz,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80
12. Norberg-Schulz, *Intentions in Architecture*, MIT Press, 1965.
13. Norberg-Schulz,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74
14. Norberg-Schulz, *Nightlands*, MIT Press, 1997
15. Norberg-Schulz, *Principles of Modern Architecture*, Andreas Papadakis Publishers, London, 2000
16. Otero-Pailos, Jorge, *Architecture's Historical Turn, Phenomenology and the rise of Postmodern*, Univ. of Minnesota Press, 2010
17. Seamon, David, , *Dwelling, Place & Environment: Towards a Phenomenology of Person and World*, Martinus Nijhoff, 1985
18. 이승헌, 이동언, 노베르크-슐츠의 '장소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사연구*, 2003.9
19. 이종관, *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20. 정태용, *팔라스마 건축 현상학의 배경과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5.4

[논문접수 : 2016. 10. 31]

[1차 심사 : 2016. 11. 15]

[2차 심사 : 2016. 11. 23]

[게재확정 : 2016. 12. 13]